

VOL. 340 • August • The Monthly Photo Art Magazine

사지예술

SAJINYESUL Since 1989

사지예술
The Monthly Photo Art Magazine

VOL. 340

2017.08

www.photoart.co.kr

스페셜 이슈 - 공동체란 무엇인가?
동강사진상 수상자 정동석
조던 매터, 한 여름 밤의 춤



사진, 그 너머의 진실

데비 콘월과 윌리 도허티는 극도로 제한된 이미지로, 사진 그 너머 숨겨진 진실을 보게 하는 작가이다. 그들은 사진만으로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진은 감춰진 거대한 반상을 드러내는 일종의 단서로서, 이미지는 답이 아닌 물음표로 존재한다. 두 작가 모두 역사적, 정치적 폭력과 그에 짓발하는 인권에 주목하는데, 이런 거대한 구조와 복잡한 부조리를 단편적 이미지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기에 그들은 차라리 은유와 암시라는 전략을 택한다.

데비 콘월은 쿠바에 위치한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의 어두운 진실과 국가의 폭력을 수용소의 일상적 이미지를 통해 암시하며, 윌리 도허티는 북아일랜드가 처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갈등을 데리(Derry)의 건조한 풍경을 통해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두 작가의 사진은 일종의 메타포이자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장막으로, 그들은 제한된 이미지와 이와 연관된 정보를 함께 보여주며 관객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사진, 그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게 한다.

누군가의 천국, 누군가의 지옥 관타나모 수용소

데비 콘월 Debi Cornwall 〈Welcome to Camp America〉

글 석현혜 기자 이미지 제공 BMW Photo Space

"나는 관객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일종의 긴장(tension)을 통해, 긴장감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사진의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고 싶었다."

- 데비 콘월

관타나모 미군 해군기지는 쿠바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는 쿠바령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군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1898년 미국이 쿠바의 독립전쟁에 개입해 얻어낸 이 미군기지는 9.11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2002년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테러 용의자들을 이 곳에 수용했는데, 알 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과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들을 재판도 없이 이 곳에 구금했다. 용의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무한정 갇혀있었고, 때로는 시각, 청각을 자극하고 수면과 생리 조절을 통제하는 고문과 폭력이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란 대

의명분 하에 자행됐다. 단식투쟁을 하는 수감자들은 사지가 묶이고 코에 고무튜브를 끼워서 강제로 영양이 공급됐다. 간수들은 3분에 한 번씩 수감자들을 감시하며 자살을 막으려 했지만, 2006년 3명이 동시에 목을 맨 집단 자살을 포함해 지금까지 6명의 수감자가 자살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관타나모를 "위험한 범죄자를 잡아두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하는데, 이는 반대로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쿠바령에 있기에 미국 내 인권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수감자들은 용의자 신분이기에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도 적용되지 않는 미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타나모 수용소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전 〈Welcome to Camp America〉가 부산 BMW 포토 스페이스에서 8월 26일



©Debi Cornwall, Glimo at Home, Glimo at Play series, Kiddie Pool, Inkjet Print on Plastic Sheet, 278x351cm, 2015



데비 콘월 Debi Cornwall은 브라운대학교에서 현대문화와 미디어학과를 졸업한 후 사진가로 활동하다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2년 동안 인권 변호사로 일했으며, 2014년부터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인권변호사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9-11 이후 미국의 국가 권력에 대해 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16년 중국 리엔조사진축제 심사위원상인 푼크를 어워드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미국 뉴멕시코의 란난 재단, 휴스턴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의 사진집 〈Welcome to Camp America: Inside Guantanamo Bay〉(Radius Books, 2017)은 2017 아틀라지 사진제에 Les Rencontres de la Photographie d'Aries Photo의 Text Book Award 부문 후보로 올랐다.



◀ ©Debi Cornwall, Gitmo at Home, Gitmo at Play series, Smoke Break, Camp America, Inkjet Print, 86x107cm, 2014
▶ © Debi Cornwall, Beyond Gitmo series, Djamel, Berber (Algeria), Inkjet Print, 86x107cm, 2015



까지 열리고 있다. 미국 사진작가 데비 콘월은 12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관타나모의 실상과, 수감자들이 당한 학대와 인권침해, 그리고 석방된 수감자들의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그는 9개월간의 서류 작업과 신상확인 절차를 걸쳐서 관타나모 수용소 내부를 촬영하는데 성공했지만, 각 이미지들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 하에 촬영됐으며 유출되는 이미지들은 일일이 검열 받았다.

때문에 그의 사진에는 인물이나 사건이 정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군인들을 위한 오락시설과 바다 풍경,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물품과 공간들, 그리고 수용소의 기념품 사진뿐이다. 어디에도 고문 받는 포로나, 학대의 흔적, 감시자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진들은 밀도 높은 긴장감으로 꽉 차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송수정 기획자는 “데비 콘월의 사진은 통제와 감시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 촬영 조건과 비슷하다. 촬영 시간은 단지 6일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촬영이 이뤄졌다는 것도 놀람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립적이고, 많은 정보를 생각했다. 이런 관점이 마치 보는 이를 교란시키기 위한 주관적인 방법 같아 흥미롭다”며 “그의 작품은 미국이 어떻게 인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위험인물,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분류해 통제하는가,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수용소로 만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21세기 인류가 어떤 식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철망으로 사방과 하늘이 막힌 수감자들의 운동 공간. 모범적인 수감자만이 발이 족쇄에 묶인 채 TV 시청을 허용할 수 있다는 미디어 룸, 모범적 수감자와 비협조적 수감자에게 각각 차등 지급되는 비품 등은 관객으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사진, 그 이면을 의심케 한다. 과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수감자들에게 제공됐을까? 유일하게 이 공간만이 공개가 허락했다면,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는 무엇이 은폐돼 있을까?

사진은 마치 장막처럼 드리워져,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관객들이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전시장에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사진뿐만 아니라,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학대 행위에 대한 미정보부의 보고서 자료, 사진집 《Welcome to Camp America: Inside Guantanamo Bay》이 함께 전시돼 있다. 사진집에는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의 건조한 풍경과 수용소 학대 피해자의 생생한 피해 증언이 한 페이지씩 교차하도록 편집해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용소의 무덤덤한 풍경이 소름끼치는 역설과 와달게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사진의 역설’, 혹은 평화의 수호자라는 ‘미군의 역설’을 들추어낸다. 전시가 열리는 BMW Photo Space에서 데비 콘월을 만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와 수감자들의 그 후’에 대해 들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수감자들과 감시자들의 공간을 주로 찍었

다. 혹시 수감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찍을 기회가 있었는가?

촬영일정 중에, 단 한 번 한 명의 수감자를 이중 거울 너머로 본 적은 있지만 사진을 찍지는 못했다. 수감자들은 이중 거울로 항상 감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이 같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갇힌 짐승처럼 느끼게 한다.

이 사진들은 모두 철저하게 통제된 동선에 따라, 옆에 감시자를 대동하고 촬영했고, 촬영된 이미지 중 인물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쓸 수 없었다. 대신 수영장이나 골프 코스 같은 병사들을 위한 오락공간을 찍었다. ‘Gitmo(관타나모의 줄임말) at Home, Gitmo at Play’라는 그들의 말처럼, 이 곳은 병사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드라이브 코스, 해변, 수영장 등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나 수감자들에게는 단 10분만 운동이 허락된 철조망을 친 좁은 운동장이 있다. 나는 이 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었다.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파는 기념품도 찍었는데, 이 기념품들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상품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관타나모를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는, 폐쇄적인 공간이자 동시에 이질적인 열대 지방의 환한 색감이 대조될 수 있도록 찍었다. 그렇지만 내 감정을 보여주기보다는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증거로서의 사진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번 전시에는 인물의 뒷모습이 등장하는 사진들도 있는데?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들은 관타나모에서 석방됐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 3국으로 추방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찍은 사진이다. 그들은 석방된 후에도 여전히 폐쇄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고, 제 3국에서도 감시 받으며, 누구와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미래의 희망도 없이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추방된 곳은, 전혀 말도 안통하고 종교도 다르고, 가족도, 직장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고 이 곳에서 그들은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석방됐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관타나모 수용소 안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들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기에, 그들의 얼굴이 아닌 뒷모습을 찍는 방식을 택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를 보여주지만 사진 자체는 수용소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사진들은 촬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타나모 수용소나 미군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수감자들에게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고 기도실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최근 방영된 ABC 뉴스에서는 관타나모 수용소 내부를 비슷한 동선으로 촬영한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 기사의 요점은 ‘관타나모가 인권유린지역이라고 하지만, 미국 내 일반 교도소의 36배 이상의 비용이 지불되며 시설도 더 좋다’는 내용이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다. 교육받은 관객들, 관타나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 관객들이라면 아마도 이 이미지를 보면서 무언가 이상한 위화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



◁ ≡ Debi Cornwall, Gitmo at Home, Gitmo at Play series, Prayer Rug with Arrow to Mecca, Inkjet Print, 121.92x152.4cm, 2015
 ▽ ≡ Debi Cornwall, Gitmo at Home, Gitmo at Play series, Comfort Items, Camp 5, Inkjet Print, 121.92x152.4cm, 2015
 ▽ ▽ ≡ Debi Cornwall, Gitmo at Home, Gitmo at Play series, Compliant Detainee Media Room, Camp 5, Inkjet Print, 86x107cm, 2015



△ ≡ Debi Cornwall, Gitmo at Home, Gitmo at Play series, Feeding Chair, Camp 5, Inkjet Print, 121.92x152.4cm, 2015
 ▷ ≡ Debi Cornwall, Gitmo at Home, Gitmo at Play series, Recreation Pen, Camp Echo, Inkjet Print, 121.92x152.4cm, 2015



또 이 전시는 사진뿐만 아니라, 미 정보부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행해진 인권 유린행위와 고문에 대해 직접 기록한 서류들, 그리고 사진집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전체 맥락이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내 사진이 어떤 지시적인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전시 전체를 통해 이해되는 개념미술(Conceptual art)이기를 바랐고, 또 이 친숙하면서도 이방인의 느낌이 드는 장소에 대해 관객들이 답을 얻기 보다는, 스스로 질문을 계속 던지기를 원했다.

가령 이 사진 속 수감자들이 공급받는 물품들이 과연 수감자들이 실제로 쓰는 물품일까? 이 기도실은 정말 사용이 가능할까? 같은 질문들 말이다.

사진에 찍힌 수감자들에게 주어진다든 물품들이나 기도실, 운동장은 실제로 수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제 3국으로 추방된 수감자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진 속 이런 물품을 공급받아보지 못했고, 이런 기도실이나 운동장 같은 공간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관타나모는 다른 감옥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이지만, 그것이 죄수들을 위해서라기보단 감시와 고문, 그에 따른 부대 상황 관리와 인원 유지 등에 쓰이고 있다. 수감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는 유사점이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거기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가?

관타나모 수용소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3명의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 유지돼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수용소의 폐지를 약속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트럼프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지지하는데

그것은 결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유럽의 테러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우리와 다른 것을 배제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우리와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지난 16년간, 9.11 이후 미국인들은 관타나모에 불안을 토로해왔고, 그것으로 문제들이 다 해결된 양, 그들을 잊어버렸다. 관타나모는 미국 영토의 밖에 있으니, 관심 밖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곳에 갇힌 사람들이 실제 테러리스트인지, 아니면 죄와 무관하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가릴 기회가 없이, 누군가 무고하게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뒤로한 채, 미국은 그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다.

지금 시대에 사진이 증거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령 관타나모 수용소를 찍은 당신의 사진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현실에 대한 증거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건 바로 답하기에는 꽤 큰 질문인데, 포토 샵이나 다양한 편집 등으로 사진이 의심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사진이 여전히 물질적인 증거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만 필름은 그렇지 않다. 내 네거티브 필름은 한 컷이 촬영 중에 미군에 의해 가워질 땀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인화가 가능하다. 그 사진이 가워질 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진이 보여주는 바가 증거로서 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을 찍을 수 있고, 무엇이 검열 받는가,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왜 그러한가?'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과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사진가로서 이 작업을 통해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어두운 얼굴을 감추었는지를 드러내고 싶었다.